

<규합한훤>을 통해 본 당대의 생활상 토론문

홍현성(한국국학진흥원)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옛한글 자료의 활용 방안을 여러모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발표문에서 생활사 자료의 측면에서 옛한글 자료 가운데서 간찰의 활용 방안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옛편지를 통해 생활상의 일면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논지에 대부분 동의하며 궁금한 점 몇 개를 질의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1.

발표문 7쪽에서 먼저 예의를 차리는 주체가 딸을 가진 집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동의하지만, 조선시대를 이해하며 가부장제라는 용어가 너무 과소비되는 인상이 없지 않습니다. 가부장제를 반영하면서 남성이 친영례를 하며, 신부가 시부모를 처음 만나는 혼례의 단계이므로, 이러한 혼례 순서가 반영되었다는 시각이 보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발표문 10쪽 등에서 신식 학문을 언급하며 어학이 나타난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때 어학이 외국어를 일컫는 것 같은데, 영어인지 혹 일본어인지 궁금합니다. 또 산술과 관련되어 다른 편지에도 언급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과학 일반을 일컫는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수학을 일컫는지 궁금합니다. 그 시대 수학을 특히 강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3.

편지에 나타난 호칭도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여성 사이에 형님, 남성 사이에 언니는 장길산 등 소설에서 봐서 익숙한데, 여성 사이 형님이나 남성 사이 언니처럼 지금과 쓰임새가 다른 또다른 어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8쪽에서 사돈 연세에 따라 인사말이 다르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쓰였는지 궁금합니다.

심도 있는 토론은 못 하고 궁금한 것만 물어봐 죄송합니다.